어머님, 아버님 우리의 딸들이 통일을 원하고 민주화를 외친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민 대통령이라며 자처하고 나섰던 김영삼 대통령에게 또 한 번 뒤통수를 맞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 일손도 도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러 온 경북대학교 **과의 **농활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김영삼대통령이 단지 통일을 외쳤던 순수한 학생들을 폭력으로 연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 마치 침략한 일본인이 우리 한국의 여인을 정신대로 끌고가 성추행하고 강간하듯 우리 20대 여대생을 성추행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8월 15일에는 범민족대회가 있었고 이 행사는 그간 7년간이나 진행되었으며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하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빨갱이니 폭도니 이적단체니 하는 말들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학생들을 연행해 나가는 과정 중 우리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말았습니다.

아래는 그 때의 상황을 진술한 한 친구의 진술서입니다.

노란 빵모자와 총을 들이댄, 테러진압부대와 같은 전경들...'이제 집으로 간다'하는 생각만이 들었다. 전경들은 우리에게 "야 ××년들아, 너네도 여자냐. 너네도 여자냐? 니년들은 창녀야! ××년들아!", "개에게 갖다줘도 거들떠도 안봐! 얼굴 들어 ××년들아", "야! 너는 몇 번이나 대줬냐? 얼굴 들어 ××년들아, 창피한 줄 알아, 야 닳았겠어.. 하하." 그러면서 여학우들의 얼굴을 때리고 들어서 쳐다보고 "이것도 얼굴이야 ××지지리도 못난게 꼴갑은, 니년도 대줬냐" 어떤 전경은 한 여학우를 일으켜 세웠다. 그 여학우는 저항을 했다. 그러더니 다른 전경이 와서 여학우의 가슴을 찢었다. 그 때 그 여학우의 눈을 본 사람은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브레지어 끈이 떨어질듯 말 듯 했고 전경들은 신이 나서 "야! ××년들아 고개들어! 그래서 그렇게 대줬냐? 더러운 년들아!" 그때 누군가 카메라가 온다고 하자 그 여학생에게 옷을 입혔다. 그리고 또 성기에 대한 욕까지 서슴없이 했다. 너무 맞아서 감각이 없어진 볼과 허벅지, 엉덩이, 가슴을...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찢겨져 피가 나는데도 "이 ××년들 너네가 뭐 잘했다고 그 지랄이야!"

전경들은 50명이 넘어 보였고 여학우들은 20명도 채 되지 않은 방에서 팬티와 브레지어만 입히고 한바퀴 돌게 했다. 밖에서 그리고 방안에서 전경들이 지켜 보았다. 다른 여학우들은 가슴을 만지는 경찰과 엉덩이와 허벅지를 꼬집는 경찰들이 있었다고 한다. 목걸이를 만지는 듯 하다가 가슴까지 손이 내려가고 비명을 지르면 "저것도 여자라고.. 하하하"

그리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담뱃불을 여학우의 손에 짓고 웃어대는 경찰도 있었다.

하번은 학교 건물에다 집어넣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옷을 벗겨놓고 매직으로 등에다 1등급에서 10등급가지 이쁜 사람순으로 1,2,3..숫자를 썻고 여학생들을 강간하려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 혼나는 전경도 있었고, 물건이 떨어졌다 하면서 속이 보이면 가슴을 만지고 그래서 기절하는 학우도 있었다.

지난 11월 20일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경찰청장과 현장책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하겠다, 처벌하겠다, 하더니 97년 3월 29일 증거불충분과 피고소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성추행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추행을 자행하는 김영삼정권을 심판하고 꼭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만이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경북대 12대 자주 총여학생회